



에스엠의료기·에이치메디칼,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부

에스엠의료기 이용열 대표와 에이치메디칼 강해욱 대표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각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날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안국찬 대외협력부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용열, 강해욱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9년 6월 설립된 에스엠의료기는 의료시뮬레이터 및 간호교육용 기자재 전문기업(주)비티 전북대점으로써 의료시뮬레이터 및 인체모형을 보급하는 의료용 교육기자재 전문기업이다.

이용열 대표는 "간호대 학생들이 메디칼 분야의 우수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간호대학과의 밀착형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 07월 설립된 에이치메디칼은 Medical Education Simulator 전문기업인(주)KMC 전북대점으로써 의료교육용 기자재 및 반려동물용 기자재를 보급하는 기업이다.

강해욱 대표는 "간호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더욱 더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전기금은 간호대학 지정기금으로 학생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희망찬 코리아와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23일 LINC회의실에서 희망찬 코리아(장애인 전문 스포츠 사단법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천 부총장을 비롯해 김광수 처장, 안소현 교수와 정은철 이사장 심정환 센터장 장진민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활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자원을 강화하고, 재활(장애인) 필라테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주기전대학 학교 기업 JK힐링센터에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작업치료와 학생들이 재활의료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조희천 부총장은 "전주기전대학은 학교기업(JK힐링센터)을 통해 장애인 필라테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철 이사장은 "희망찬 코리아는 수중, 운동 인지(발달장애) 프로그램을 노인/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학교-기업과 연계한 수중운동재활, 발달장애 프로그램 실습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상생협력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 드림스타트, 가족과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

김제시 드림스타트(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양육자 20명을 대상으로 카페 플루토 대표 강희진에서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활동은 육산동 소재 카페 플루토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도시락 만들기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직접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는 재능기부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어려웠던 아동과 양육자들이 주로 참여했으며, 아동들은 가족과 함께 직접 도시락을 만들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가족들과 소풍을 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체험활동은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가정에게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카페 플루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플루토는 드림스타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드림스타트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자녀에 이어 올해도 빵과 음료, 감사패 등 직접 만든 간식들을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함께서기 응원해... 'Together, Youth' 개최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일일창업 성황리

전주시 덕진구에서 23일 청년의 날을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일일창업 'Together, Youth'가 IVY588(백제대로 588)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깜짝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한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자립준비청년들이 운영하는 일일 창업이 인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다.

김 도지사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준비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청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Together, Youth'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행사로,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음료 판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권익 옹호 캠페인 응원 인형 만들기, 청년 응원 메시지 작성, 즉석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행사 수익금은 전액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음료 판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권익 옹호 캠페인 응원 인형 만들기, 청년 응원 메시지 작성, 즉석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행사 수익금은 전액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최진균 씨는 "우리가 직접 기획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우리의 힘으로 후배들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여성단체협,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남원시 여성가족과(과장 김현옥)는 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인영희)에서 23일,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며 춘향장학재단에 5000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여성단체회원들이 지난 4월 제철 딸기로 직접 만든 잼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 일부를 기탁하는 첫 결실을 보였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995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여 창립된 이래 후원 및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인영희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멋진 성장을 돕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현옥 과장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핵심 리더로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자원봉사단 발대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 센터장 남궁행원)가 23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에서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정성주 시장, 서백현 시의장 비롯한 1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자원봉사단 대표의 자원봉사 결의문 낭독으로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 축제 전반에 대해 축제팀의 지평선축제 Master Plan 보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의 각 분야별 봉사자의 태도 및 역할을 안내하며 성실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주 시장은 격려사에서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이 불편함 없이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윤권 이사장은 "올해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5일간) 벽골제 일원 및 김제시내에서 열리며 1일 200명 총 1천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돼 셔틀버스 안내, 종합안내소, 프로그램 지원, 주차관리 등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동동동,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홍보 노력

남원시 동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에서는 9월 11일부터 2024년 농업·농촌 공익차기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은 지난 5월부터 △전년도 지급대상자 신청 여부 확인 및 미신청 농가 신청안내 △2024년 기본형 공익차불채 신청 농가에게 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2023년 주소 및 경영체 등록 기준 미달로 신청 제외된 농가 신청안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으며,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지 3년,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올해는 2022년 1월 1일 이전 도내로 전입하고,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동동동은 779명 중에서 추산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90%를 지급하였으며 수령하지 않은 88농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여 조속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선자 동동동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더욱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남원·순창지역 해방회와 협약식

남원시 대강면은 23일, 국제로터리 3670지구 남원·순창지역 해방회(대표 송훈철)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강면장(김종표),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권기환) 및 위원, 국제로터리 3670지구 남원·순창지역 해방회, 대강면 맞춤형복지팀이 함께했다.

해방회는 남원로터리(회장 유호근), 용성로터리(회장 송훈철), 춘향로터리(회장 김유숙), 지리산로터리(회장 최우진), 운봉로터리(회장 최태운), 순창비전로터리(회장 이지현), 남원중앙로터리(회장 남윤길) 총 7개 로터리로 구성, 이번 협약은 대강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 주민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지원, 인적·물적 자원교류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대강면 빨래방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윤길 회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하며, 로터리 회원들과 합



심하여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표 대강면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잘 보살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향교동, 드론제전 홍보 위해 완주 삼례읍 찾아

남원시 향교동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역에서 펼쳐지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관외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일 완주군 삼례읍을 찾았다.

이날 향교동장은 삼례읍 직원들에게 드론제전 행사와 남원누리시민 가입 혜택을 홍보하고 삼례읍 시장 회의에 참석해 마을주민들에게도 드론제전 관람을 권유, 남원누리시민 가입 80건을 확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한편 권혜정 향교동장은 "앞으로도 드론제전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남원누리시민 유치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자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가족재단, 고창 상하농원서 워라밸 가족학교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21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워라밸 가족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라밸 가족학교'는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날 행사에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아우러져 쿠키만들기 체험, 부모-자녀간 소통, 가족간 문화 공유,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전정희 원장은 "워라밸 가족학교'는 일·생활 양립의 시점으로 가족간 소통을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산동면, 축제 앞두고 지역 홍보 총력

남원시 산동면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남원에서는 개최되는 국제드론제전, 남원문화유산이행, 흥부제 등 다양한 축제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산동면은 도민체천 자매결연지인 고창군 체육회를 방문해 축제를 홍보하고, 인근 장수군 번안면에서도 남원의 축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관내에 위치한 산동초등학교와 1사1촌 협약을 맺은(주)천하제일시료를 방문, 학생과 임직원들에게 드론축구·이색로봇체험 등 주요 프로그램 일정들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지양근 산동면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민들과 인근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남원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계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